

3/20/16

설교 제목: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영성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복음 12:1-8

- (요 12: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절관주** 요 11:1, 요 11:44
- (요 12: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 (요 12: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 (요 12: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 (요 12: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 (요 12: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 (요 12: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 (요 12: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절관주** 마 26:11, 막 14:7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 최초로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자 극찬을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고백이 나온 것을 계기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보고 계시다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말을 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행동이 가관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주님을 나무라듯이 큰소리로 막고 나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베드로를 보고 언제 칭찬하셨는가 싶게 심하게 질책하십니다.

(마 16: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놓고 왜 이토록 흥분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와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두 번째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막 9:30)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막 9:31)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막 9:32)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막 9:33)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막 9:34)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은 비장하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듭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막 10:32)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막 10:3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막 10:34)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곧 당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막 10: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막 10: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막 10: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제자들 보다 한술 더 떠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은 자신들을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혀 달라고 예수님께 유산 청구까지 합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잣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이런 한심한 일이 지금도 교회 내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서로 누가 더 큰가? 누가 목사님의 좌의정이고 누가 목사님의 우의정이냐?를 놓고 머리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성공에, 돈 몇 푼에 목 매달면서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께,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려야 하는 이 사순절 기간조차 세상에서 누릴 돈 달라 명예 달라 권력 달라 영의정 자리 우의정 자리 달라고 보채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있었으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르다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 12: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이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요 12: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은 베다니에 종종 들리셨는데 그때마다 마르다 마리아는 정성껏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날도 잔치가 벌어지자 언니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으로 주님을 섬겼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요 12: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아주 값 나가는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 드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풍습은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기고 이 향유를 머리에 살짝 발라주는 것이 최고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값진 향유를 아예 예수님께 쏟아 부어 드렸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은 340g 으로 약 300 데나리온 값어치라고 가롯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로자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인 것을 감안하면 300 데나리온은 보통 근로자의 일 년치 연봉입니다.

넉넉한 형편도 아닌 마리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 비싸고 귀한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 사랑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진정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삼남매를 예수님께서서는 자주 찾아오셔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죽어 이미 무덤 속에서 썩기 시작한 오빠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단 한마디 말씀으로 살려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모든 것을 지켜 본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드 한근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가롯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요 12: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 12: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흠쳐 감이러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롯 유다가 진실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돈이 탐난 것이지요.

마리아가 헌금으로 했으면 자신이 흠쳐 쓸 수 있었는데 기회가 날아가버려 화가 났던 것이지요.

그동안 가롯 유다와 같이 생활하며 지낸 사도 요한이 그를 가리켜 돈궤를 맡아 거기에 넣은 돈을 흠치는 도둑 놈이라고 목격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는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 12: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를 위하여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이 날씨가 습하고 더워서 시체가 부패할 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악취를 줄이기 위해 시체에 향유를 바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 절차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안식일이 바로 시작된지라 안식일 규례로 인해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몸에 향유를 바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마리아가 부어 드린 향유로 덮여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린 것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감동시켰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3 년이나 동거동락 하면서 가르친 열두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만 눈들이 멀어 영똥한 생각과 소리들을 해대고 있던 터에 당신이 가야할 길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준비해 주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고맙고 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외롭고 고독한 십자가 길에 동행한 사람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에 얼마나 감동하셨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막 14: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감격하셔서 우리의 한 일을 온 천하에 말하여 기념하라고 하십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요?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단지 300 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녔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사랑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한 이 사실을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눅 10: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늘 주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면하여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 사랑이 싹트게 되고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예민함과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주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영적 예민함과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마리아로부터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 발아래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왔을 때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